

자료 1

제2회 전국모의고사 해설자료

1. 서론

2015 교육과정은 궁극적 지향점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이다. 이를 위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문화의 다양성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적 평등관과 기회균형선발제, 컴퓨팅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2015교육과정의 지향점을 구현하기 위해 첫째, 한 국가 안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다문화교육이다. Banks(2008)는 다문화 교육의 구성요소로 ‘내용 통합(content integration)’, ‘지식구성과정(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 ‘편견감소(prejudice reduction)’, ‘공평한 교수법(equity pedagogy)’,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문화(empowering school culture)’의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세가지를 제시해보면 먼저, 내용 통합이다.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에 나오는 주요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및 집단에서 자료와 정보를 가져와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다음으로, 편견감소이다. 이는 학생들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른 인종 집단의 학생들과 함께 협동학습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보다 긍정적인 인종적 태도와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로 입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문화 형성이다. 이는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사회계층 집단 학생들이 교육적 평등을 경험하도록 학교의 문화와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2015교육과정의 지향점을 구현하기 위해 둘째, 결과적 평등관에 입각한 기회균형선발제를 확대해야 한다. 먼저 결과적 평등이란, 결과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에게 더 많은 교사의 교육적 노력과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더 좋은 교육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균형 선발제는 말 그대로 공직이나 주요 대학 신입생 선발 등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경우, 그 불균형이 일정정도 기회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수파가 된 지역에게 혜택을 주는 선발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공직의 경우, 공무원 중에서 비수도권 사람들이 적다면 인위적으로 비수도권에서 30% 이상을 반드시 선발하도록 할 수 있고,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도 현재의 농어민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 장애인들의 고용기회가 적다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하는 것 등이다. 평등주의 사고에 입각한 기회균형선발제는 능력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2015교육과정의 지향점을 구현하기 위한 세 번째는 학생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성화학교가 설립되었다.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한다. 영재교육은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법」이 영재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영재, 어학영재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체제가 있다. 또한 영재교육을 넓게 해석한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포함할 수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으로 구분된다. 영재학교는 전국에 여섯 군데 즉, 서울 경기 부산(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 대전 대구 광주에 있다. 여기에 광의의 영재교육기관으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포함할 수 있다. 영재학급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 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을 말한다.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 출연기관 및 과학·기술·예술·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 등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2015교육과정의 지향점을 구현하기 위해 마지막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도입이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의 핵심역량으로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등을 제시하고 공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교과로 지정하였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한 코딩교육이 아닌 생각하는 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학생들이 주역이 되어 살아가는 미래 사회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에 해당한다. 필수적 역량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실과’와 중학교 ‘정보’ 과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배우게 되고,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의 ‘정보’와 ‘정보 과학’ 과목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더욱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 급간에 내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놀이와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작의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보다 심화된 내용을 토대로 다른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결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2015교육과정의 지향점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의 다양성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적 평등관과 기회균형선발제, 컴퓨팅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 논해 보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 2015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은 구현될 것이다.